

平成 30 年度

前期日程

韓国語問題

(注 意)

1. 問題冊子及び解答用紙は、試験開始の合図があるまで開いてはいけない。
2. 受験番号は、各解答用紙の受験番号欄に正確に記入すること。
3. 問題冊子のページ数は、表紙を除き6ページである。ただし、最初のページは白紙である。脱落している場合は直ちに申し出ること。
4. 解答用紙は表紙を含めて4枚である。
5. 解答は、解答用紙の指定されたところに記入すること。枠からはみ出してはいけない。
6. 問題冊子の余白は、適宜下書きに使用してよい。
7. 解答用紙は持ち帰ってはいけない。
8. 問題冊子は持ち帰ること。

I. 次の文章を読んで、後の問いに答えなさい。

모 대기업체 임원인 K 씨의 체험담이다.

“신입 사원 선발에서 여자는 1명만 뽑아야 했는데, 2차 필기시험을 거쳐 면접까지 올라 온 사람은 두 명이였다. 출신 학교도 같고 (a)점수도 비슷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면접을 마치고 나가는 태도가 서로 [1]. 한 사람은 ‘수고하세요.’ 하는데, 다른 한 지원자는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었다. 딱히 이유를 말하긴 어려웠지만, 면접 위원들은 ‘고맙습니다.’ 쪽에 점수를 더 주었고 결국 그 지원자가 최종 합격됐다.”

①K 씨의 체험은 사회 생활에서 ‘한 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 준다. 특히 아는 사이든, 모르는 사이든 만나고 헤어질 때의 한 마디 인사말은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의 좋고 나쁨을 좌우하는 갈림길이 된다.

우리가 헤어질 때 흔히 쓰는 ‘수고하세요.’ 라는 말은 그런 점에서 가장 (b)논란의 되는 것 중 하나이다. 한 중진 국어학자는 이렇게 얘기한다.

“‘수고하세요.’는 손아래 사람에게 하기에 좀 (c)어쭙잖은 말이다. ②받을 ‘수(受)’, 어려울 ‘고(苦)’자를 쓰면서 인사말을 대신하는 것은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 이름도 모르는 고마운 손길이 눈길을 쓸거나 지하도 입구의 청소를 도맡아 줄 때는 ‘수고하세요.’ 보다는 그저 ‘고맙습니다.’ 하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정양완·강신항 『어느 가정의 예의 범절』)

[2] 이 말에 대한 반응 역시 세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서울대 박사 과정에 있는 조남호(29) 씨의 주장이다.

“중학교 때 친구가 ‘수고하십니다.’란 말을 선생님께 썼다가 호되게 [3] 듣는 것을 보고 머리 속으로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뿌리박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이 너무 보편화됐다는 느낌이다. 또 정말 상대방에게 고생하라는 뜻으로 이 말을 쓰는 사람도 없다. 그런 말을 원래 뜻이 그렇다는 이유로 배척해야 할까?”

국립국어연구원의 이근용 연구관은 “강의 시간에 2~3학년의 대학생 50여 명에게 ‘수고하세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말이 뭐가 어때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밖에 ‘만나고 헤어질 때의 인사말’에 대한 독자들의 문의는 한이 없다. 다음은 김운미(26·한신증권) 씨의 얘기.

“엘리베이터에 회사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났다. 그 중에는 중역도 있고 동료들도 있었다. 동료한테야 안 한다 쳐도 중역한테는 인사를 해야겠는데 뭐라고 해야 좋을까?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는 수다를 떨다가도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서면 갑

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져 인사라도 할라치면 누가 쳐다볼까 봐 [4]. 그래도 탈 때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했는데 내릴 때는 ‘먼저 내리겠습니다.’ 해야 할지, ‘안녕히 가십시오.’ 해야 할지 몰라 ‘저, 그럼……’ 하고 얼버무리거나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예의바르지 못하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뒤통수가 근지럽다.”

허정혜(경남 마산시 완월동) 씨의 다음과 같은 얘기는 잘못된 한 마디 인사말이 어떤 낭패를 몰고 올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경우다.

“며칠 전 남편과 함께 외출 중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동년배의 부부를 만나 ‘두분의 신수가 참 좋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 그런데 (d)뒹날 그분들이 그 말은 (e)웃어른이 아랫사람에게나 쓰는 말이라며 민망할 정도로 면박을 주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인사말을 했어야 했을까?”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끼리 주고 받는 ‘[5]’ 라는 말도 논란이 많은 말 중 하나다. ③친하지도 않은 사이에 남이 어디 가는가까지 묻는 것은 실례며 듣는 사람 역시 ‘응 저어기.’ 식으로 행선지를 밝히지 않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피차 무의미한 인사말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이 말이 ‘진지 잡수셨습니까?’ 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을 담은 것이 실제로 상당히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만남과 헤어짐의 인사말로 적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집에서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 아이들과 주고 받는 인사말은 어떤 게 좋을지도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사·국립국어연구원 편(1991)『우리말의 예절』, 조선일보사】

問 1. _____部 (a) ~ (e) の発音を例にならって発音どおりに書きなさい。
(例 : 단어 → 다너)

問 2. [1]- [4]を埋めるのに最も適切な語句を次の語群の中からそれぞれ選びなさい。

[1] 비슷했다, 같았다, 통했다, 달랐다

[2] 그러다가, 그러면, 그러나, 그래서

[3] 꾸중, 험담, 칭찬, 평가

[4] 멋지다, 멋있다, 멋없다, 멋쩍다

問 3. [5]に入る最も適切なあいさつ言葉を書きなさい。

問 4. ①~③を日本語に訳しなさい。

II. 次の文章を韓国語に訳しなさい。

①ふたりの若い紳士が、すっかりイギリスの兵隊のかたちをして、ぴかぴかする鉄砲をかついで、白くまのような犬を二ひきつれて、だいぶ山奥の、木の葉のかさかさしたところを、こんなことをいいながら、あるいておりました。

「ぜんたい、ここらの山はけしからんね。鳥も獣も一ぴきもいやがらん。なんでもかまわないから、早くタンタアーンと、やってみたいもんだなあ。」

「しかの黄いろな横っ腹なんぞに、二、三発お見舞もうしたら、ずいぶん痛快だろうねえ。くるくるまわって、それからどたっと倒れるだろうねえ。」

それはだいぶの山奥でした。案内してきた専門の鉄砲打ちも、ちょっとまごついて、どこかへ行ってしまったくらいの山奥でした。

【宮澤賢治(2000)「注文の多い料理店」『注文の多い料理店』,岩波書店】

②九月に入って、真っ青な空からじりじりと太陽が照りつける日が続いている。信号待ちで、目をよけるものまったくない交差点にしばらく立っていたら、それだけで額から汗がにじみ出てきた。それでも、あまりの暑さにまだむき出しのままにしている腕をなでて通る風は、まぎれもない秋のそれだ。高い空に、刷毛ではいたようにかかっている二筋の雲は、白く透きとおってまったくかげがない。季節とは不思議なもので、今年のような暑さの厳しい夏でも、暦の上の立秋を過ぎたころから、風だけは秋の音と感触を運んでくれた。

【中村桂子(1982)『女性科学者ノート』,人文書院】

Ⅲ. 次の文章を日本語に訳しなさい。

(この部分につきましては、著作権の関係により公開しません。)

【김동리(1994)「밀다원시대」 『정통한국문학대계 11』,어문각】

(この部分につきましては、著作権の関係により公開しません。)

【최광식(1994)「원시공동체의 해체와 고대국가의 발생」 『한국사 1』,한길사】

(この部分につきましては、著作権の関係により公開しません。)

【윤중국(2015)「복소리에 담은 열정」 『좋은생각』 2015년 10월호,좋은생각사람들】

Ⅳ. 次の慣用表現の意味を日本語で説明し、その慣用表現を用いた韓国語の文章を作
なさい。

① 옷이 날개

②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